

특별기획



군산영어축제, 22일 영어체험센터서

제9회 군산영어축제가 오는 22일 소룡동 군산영어체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9번째를 맞이하는 영어축제는 '미래를 향해 뛰라'는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 희망을 향해 날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행사는 영어 풀든벨 퀴즈 등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돼 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영어를 즐기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영어권 7개 국가로 구성된 체험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 역사, 음식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내년 정보화시행계획 확정

익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익산시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보화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의원, 대학교수, 여성단체,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익산시 정보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2017년 정보화시행계획을 검토 확정지었다.

내년 주요 정보화사업은 익산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전산실 서버망 네트워크 구축, 공동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신규사업 8건과 정부표준 온나라시스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농촌관광대여기점자랑 구축 등 30개 지속 운영사업을 포함한 총 47개 사업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개최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과 지역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제4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체육대회 행사가 19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봉수)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익산시립 풍물단과 무용단의 축하공연, 이영주 합창을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유공자 35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정현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이춘석·조배숙 의원 만나 예산반영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일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과 각각 만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번에 요청한 국가예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고도보존육성사업,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소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양 국회의원에게 "시의 현안사업이 국회단계를

삭감되지 않고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보다 10년이나 늦게 건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팽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동시착공 당위성과 하수처리기 감량화를 위한 유기성 폐기물 통합소화 시범사업의 설계비 12억 반영을 요청했다.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은 국가예산 확보가 마바지에 다다른 만큼 지역

의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 해결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노력해주는 만큼 익산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서민의 삶에 밀착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익산의 미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사업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주요 업무보고 청취·15건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9일간의 회기를 마친 군산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의가 발의된 조례 등을 처리하고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2016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 및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으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에서 군산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등 내부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배형원·김영일·이복·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문화·예술사업의 중요성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행정전문가인 공직자들이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군산의 문화와 예술분야를 망라해서 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 '군산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의 여건이 대동소이한 여수시도 해양케이블카를 건설하여 관광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군산시도 원도심과 월명산·금란도·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일명 '군산-월명산해양관광케이블카' 건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복 의원은 '군산시 금가지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전북은행은 청암당사부터 지역에 입점해 지역민과 함께 수 십 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지역 내 점포수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칫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심사와 지방은행 배려 없는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하여 2년간 5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위탁금을 군산시는 수익금 1%도 되지 않는 500만원에 위탁한 것과 현수막 게시대는 상단광고와 분리할 수 없음에도 수익성이 좋은 상단광고 47개소에 2018년 5월까지 연장하여 금번 지정게시대 위탁에서 제외한 집행부의 행위는 배임이라며 철저히 확인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천수에 치러진 시간여행 축제때 구시청사를 정비하여 활용하였다면 더 멋진 축제가 됐을 거라며 건축물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활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임시회 통과

군산시는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행정구역 변경은 2009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변경은 택지개발, 도로신설 등으로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지역과 1개의 필지나 공장 등이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 등

일제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한 필지가 2개의 읍면동이 걸쳐져 있던 지역 일부를 조정하고, 단일 공장이 2개동으로 나뉘어져 불편을 겪던 지역에 대해 단일동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또한 농지 재정리지역 경계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9개동 12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변

경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오는 11월까지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내일 은파호수공원에서

군산시가 오는 21일과 22일 은파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평생학습을 통해 단합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행복 가득한 평생기쁨이란 주제로 마련된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시민교육센터가 주관하는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는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각종 무대행사와 학습결과물 전시행사, 다양한 영역의 평생학습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행사에는 80여개의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참여해 매듭공예, 한지

공예, 한산모시공예, 힐링미술, 로봇체험 등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21일 열리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0여개 팀이 참여해 라인·벨리댄스 등의 경연을 펼치며, 서예, 문인화 등 60여개의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이어 22일에는 청소년부터 대학생, 직장인, 평생학습관 수강생 등 15개 팀이 참여해 '평생학습인 예술제' 행사가 진행된다.

진성봉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생학습 체험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경찰서, 주요 교차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군산경찰서가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교통신호시스템의 중단에 대비해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했다.

경찰은 대규모 정전사태, 태풍, 지진,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교통신호시스템의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최대 4시간 동안 교차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중앙사거리 등 5개소에 설치했다.

실제 2011년 9월 15일 서울 일부 지역과 전북, 경기 등 전국 곳곳이 기습적으로 정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약 5시간이 지난 뒤에 복구되는 대규모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산경찰은 정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원활한 교통, 안전한 교통을 위해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정신지체 행려자 가족에게 인계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16일 "차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신지체자를 발견 후 '원스톱 신원확인 시스템' 활용하여 인적사항 확인 후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출동한 운영경 경위는 "원스톱 신원확인 시스템은 주취자, 치매노인, 정

신지체자 등 신고처리를 할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울 때 적극 활용한다면 원활한 업무 수행은 물론 대상자들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말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다."며 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부안정명60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6. 10. 28.(금) 18:00  
 □ 장소 : 부안군청 앞 광장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부안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의회**